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 연구: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 중심으로

채 민*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본질과 장애 정체감 형성의 의미를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로 논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음악창조 활동에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년 2명을 표집으로 조사하고 심층 면접하였다.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에서의 연구결과는 첫째, 음악창조 활동 결과물인 ‘새벽 날개’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장애 정체감 형성의 의미에서는 ‘함께하니 즐거워’, ‘자기 의지와지지’, ‘나도 연주자’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음악창조 활동 경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자기 결정과 상호소통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장애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장애 인식을 지원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과 음악창조 활동 경험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살피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기 위한 실천적 지원과 앞으로의 사회적 문화적 접근으로의 장애 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발달장애 청소년, 장애 정체감, 음악창조 활동, 사례연구

*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박사과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은 인간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을 활용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음악적 기능향상 이상의 인간영역 발달을 경험하게 한다(정현주, 2015). 이러한 음악적 경험은 인간의 발달단계마다 자기감정, 욕구, 정서를 표현하는 데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음악은 비언어적 특성이 있어 창의적인 표현을 끌어내고 발달시키는 것에 효과적이며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지원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채민, 2009). 장애인들에게 음악적 목표는 음악감상, 음악기술향상, 음악적 재표현, 즉흥연주 등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감정변화 경험과 신체의 움직임을 질서 있게 표현하는 것,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통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임은희, 1997).

발달장애 청소년 시기의 정서적 안정감은 각자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내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한다.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내 또래들과 정서적·사회적 경험을 하게 하는 연주 활동에서는 동질감과 소속감의 경험을 가진다. 또한, 연주 활동을 통해 신뢰, 인정, 수용, 경청, 존중과 같은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다(김숙희, 2010). 음악을 재표현하는 합주 활동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소속감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는 김현정(2019)의 연구처럼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등의 음악 활동이 청소년의 협동적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상규·김원중, 2007).

장애 당사자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음악창조 활동¹⁾은 장애 당사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황준성(2013)은 재활 음악치료의 역할이 개인, 관계 및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연주 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 당사자의 음악 활동과정과 결과 모두 당사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기술을 배우고 자기표현의 확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통합, 공동체 참여, 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이 개인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과 다양한 참여를 표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창조 활동인 '음악 만들기'는 음악기획, 제작, 홍보, 공연의 경험, 음반제작이나 음악 관련 앱, 프로그램 제작 등 음악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이미경,

1) 음악창조 활동이란 '노래 만들기'의 한 형태로 개인의 심리적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 만들기'를 통칭하며 결과적으로 '음원 발매'까지의 과정을 가진다.

2017).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뿐만 아니라 창조적 음악 활동과정 중에 경험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지원한다. 하지만 장애 당사자의 실제 자기표현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랫말과 멜로디를 결합하여 창조적인 음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장애인의 문제영역에 중재 역할로 음악 치료적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음악창조 활동은 장애 당사자의 자기표현을 만들 수 있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하고 내면의 감정과 사실, 생각 등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음악창조 활동과정은 기존의 재현적 음악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장애 정체감 형성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회적 참여, 자발적 활동, 자신의 창작물 소유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진수경, 2021; 원초룡, 2020; 장연희·박은경, 2018).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음악 활동 참여 욕구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발달장애인의 필요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 권세라(2019)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사가 제시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장애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에 맞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지속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음악창조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기부터 결핍된 독립기술능력, 공동체 통합참여,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필요한 자기 결정, 상호소통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장애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환경에 노출된다. 질병, 상실, 결혼 등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장애 인권 활동, 장애인의 집단교류 경험 등에서 사회적 모델을 접하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 개인에게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 될 수 있다(문영민, 2016). 이런 장애 정체감은 장애가 있는 집단과의 물리적인 통합 속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해석을 통한 개인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였다(문영민, 2016).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장애 정체감의 형성과정 중에 있는 중요한 시기로 지역사회 적응기술인 대인관계와 기대 고용 수준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장세영, 2021).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대인관계 기술인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사회적 단서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갈등의 발생과 조정, 해결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성 기술을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Sitlington, Clark & Neubert, 2006). 이러한 사회성 기술을 가진 발달장애 청소년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통합된 환경에 긍정적으로 수용되며, 직장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유리·김진, 2018). 하지만 많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제한된 사회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Gerber, 2003; Leffert & Siperstein 2002; Walt

on & Ingersoll, 2013).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주변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타인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참여를 지원하고 공동체 참여를 위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성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김우리·고혜정, 2013; 우지연·이영철, 2010). 이수민과 이세형(2020)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은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한다고 하며 그 하위요인으로 희망·배려·의지, 지지체계, 자기개발 및 권리 보호 욕구, 소극성·무기력·무관심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음악창조 활동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의 인식 변화 과정에서 장애 정체감의 형성에 필요한 중재로 음악창조 활동 경험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음악창조 활동 경험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보고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관적 경험을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림카드, 활동 영상, 사진 등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면담하였다. 장애 정체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긍정적 장애 정체감이거나 부정적 장애 정체감처럼 장애인들의 삶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할 수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 정체감의 범주를 장애 인식과 사회적·문화적 관점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은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창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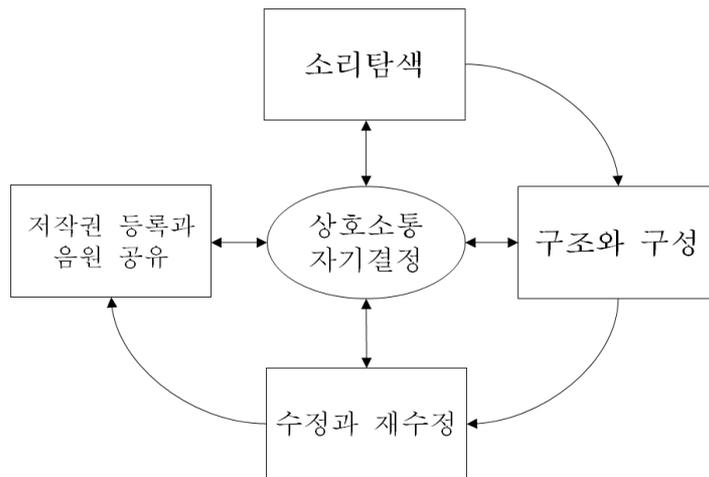
음악창조 활동이란 ‘노래 만들기’의 한 형태로 개인의 심리적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

악 만들기'과정을 통칭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호소통의 기회를 지원하는 '음원 발매'까지의 과정을 가진다. 장애 당사자들의 이런 음악적 과정과 결과물의 직접적인 참여는 개인적인 행동과 심리적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음악 활동의 자립을 지원하게 한다. 이것은 재활 음악치료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황준성, 2013) 음악창조 활동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음악 접근에는 교육적 측면과 치료적 측면이 강하였다. '음악치료 과정'에서 교육적 접근으로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지 향상이나 정서·행동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현존하는 음악을 지시와 모방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정희승, 2017). 또한, 사회성 향상과 사회공동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음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유아정·남현우, 2022; 조수진, 2016; 임수경, 2014) 치료실의 경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회성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음악적 창의성은 가치 있고 독창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의적 음악 사고과정을 말한다(김성준 외, 2010). 크라투스(Kratus, 1994)는 음악 창의성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수정 및 검증할 때 그 사고과정은 그들이 연주하는 동안 음악 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히키(Hickey, 2001)도 음악 창의성을 일반창의성과 관련지으면서 '음악에서 창의적 사고는 인지적인 행위이며, 창의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음악적 창의성은 선천적 능력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히키는 창의성을 창작의 능숙성과 구별하는 것과 달리, 크라투스는 따로 구별하지 않고 창의성이 발산적 사고와 분명히 다르지만, 창의성과 창작능력을 함께 갖춘다고 하였다(김현실·김은주, 2015). 노래 만들기 활동은 이미 만들어진 곡의 가사 혹은 멜로디를 일부분 혹은 전체를 수정해서 새로운 곡으로 만드는 과정으로(김종인, 2008) 흔히 가사 채우기, 개사하기, 노래 변주하기, 즉흥 노래 만들기, 작사와 작곡 활동으로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정다운, 2016). 작사(作詞)는 '노래로 부르기 위한 말을 짓는 것'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짓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호섭, 2020). 학생들은 음악창작과정을 배우고 적용할 때 음악적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통찰을 표현하고 소통하게 된다. 음악적 창의성의 견해에서 웹스터(P.R. Webster)의 음악적 창의성 모형은 창작 의지, 사고과정, 창작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창작 의지는 작곡, 연주, 듣기, 즉흥연주로 구분되었고 듣기는 반복 듣기와 일 회 듣기로 세분되었다. 사고과정은 음악적 기술과 비 음악적 조건 간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역동적인 교류 과정에서 이 내용은 준비, 숙고, 작업, 확인이 양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순환적인 사고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음악을 창의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악기로 표현할 수 있게 하

면서 창의적인 음악적 사고의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다(김태완, 2015).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음악 만들기를 ‘음악창조 활동’으로 명하고 미국의 국가 핵심음악 기준(National Core Music Standards)중 창작활동 과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의미에 맞게 음악창조 활동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기존에 창작활동과 차이는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생산하는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에 있다. 음악창조 활동의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자기 결정과 상호소통을 기반으로 음악 과정을 경험하지만,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의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음악 활동의 자립을 구현하는 ‘재활 음악치료 프로그램’과 그 목적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음악창조 활동모형은 소리 탐색, 구조와 구성, 수정과 재수정, 그리고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의 네 단계로 본 연구자에 의해 재구성되었으며 다음 <그림 1>은 음악창조 활동모형이다.



<그림 1> 음악창조 활동모형

미국의 국가 핵심음악 기준(National Core Music Standards) 창작활동 재구성

음악창조 활동의 첫 번째 과정은 소리 탐색(sounding and exploring) 단계이다. 이 과정은 소리 개념, 생각, 느낌과 같은 음악적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인지적 수준이 비장애인들의 사고과정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음악창조 활동에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창조적 아이디어’에 열린 수용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기표현이 유연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상호소통의 과정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음악학습 정도에

따라 연구자의 지도를 받거나 혹은 스스로 다양하게 음악을 접촉하고, 음악 개념을 탐색하며, 주어진 음악 패턴(박자, 가락, 화음)과 표현을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연구자는 선행된 창작물의 목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어내 음악창조 활동의 과정에 참여도를 높인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영상, 그림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카드와 키보드 미디녹음 부분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소리표현들을 1~5번 트랙으로 저장하며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와 구성(building and making) 단계는 음악창조 활동의 핵심적인 단계로 참여자들은 음악적 재료를 가지고 생각한 바를 표현할 방법을 설계하고,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음악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창작물을 조직하고 구성하며 기록한다. 이때 작곡 프로그램 피날레 11버전으로 창작물을 쉽게 구성하고 기록함으로써 지속해서 음악창조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 참여자들은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실험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멜로디와 박자변환, 악기 음색 선택, 음량 등을 선택하여 음악패턴을 더욱 구조화시킨다. 그리고 연구자는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창작 의도를 설명하고 더 발전시켜 참여자들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하게 음악 형식에 맞춰 창작 계획을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한다(정진원 외, 2021).

자신들의 작품을 보완하는 수정과 재수정(revising and refining) 단계는 음악 창조물을 서로 평가하고 재표현하는 단계로 참여자들이 창의적 노력에 대한 자신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음원을 들어보며 피드백을 통하여 더 나은 표현에 대하여 수정의 과정을 거친다. 앞선 두 단계에서 얻어진 음악창조 활동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계속 음악을 들어보고 수정하면서 결과물을 더욱더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중에 수정되는 소리의 최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자기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험을 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presenting and sharing) 단계는 직접 만들어진 음악 창조물을 공인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창작곡을 등록하고 음원을 녹음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음원이 유통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완성된 자기 소유를 공유하기 위해 음원 플랫폼을 활용한다.

음악창조 활동의 4단계 중 3단계인 수정과 재수정 단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치며 서로 상호소통의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을 지원하며 음악적 발전들 서로 도모한다. 하지만 마지막 4단계인 저작권 등록과 음원 공유에서는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로서 최종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음악창조 활동은 자기 결정과 상호소통의 과정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까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2. 발달장애인의 창조 활동

인간은 창조라는 미적 형식을 통해서 내면의 욕구와 자아가 소통하게 함으로 문제를 승화하고 안정된 감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양린, 2021). 특히 원활한 소통의 부분에서 공감은 소통의 기본이며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 역할이 교차 되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반응한다(신민주·주용국, 2018). 발달장애 청소년은 성장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래나 성인들과의 의사소통, 갈등 해결, 협력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중 가장 힘든 부분이 서로 간의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이다. 공감 능력은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하게 하며 또래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부적응에 대한 동조 현상을 억제함과 동시에 사회적 능력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강유선, 2013).

많은 예술 활동과 예술적 접근을 통한 소통의 확장은 발달장애인의 소통과 사회 관계성, 자기 표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무용은 인간의 의식을 신체를 통해 움직임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 중 창작무용은 자기 주도적 움직임이다(정희정, 2018). 이는 그 움직임이 작품의 주제, 표현 등에 의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일 때 창작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조윤정, 2010). 창작무용을 중재로 한 프로그램 중 강은주(2006)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리듬감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창작무용에 대한 교육 차수가 증가할수록 리듬감 향상되었다. 조윤정(2010)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 무용교육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특수학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의 창작 무용교육 전, 후를 비교하였을 때, 창작 무용교육이 정서 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희정(2018)은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무용 후 심리적, 이동성 측면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의 신체적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신체 만족도, 신체 존중감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극 분야에서 박연희(2021)는 직접 연극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과 같이 토론, 과제수행 등 연극 창작활동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관계성, 상호협력설, 쌍방향소통 측면에서 의미를 도출하였다. 창작 음악극에서는 진수경(2021)은 타인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 형태로 창작 음악극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자아 존중감, 사회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활동을 통한 미술 치유는 창작물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인간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억압된 갈등이나 분노, 스트레스를 정화하는 방법으로 창작활동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치유한다(양린, 2021). 여광웅 외(2006)는 ADHD 아동이 주의 산만한 행동을 미술을 통해 공격성을 완화하고, 주의 산만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등 효과성을 입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법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정체감을 느끼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김유하(2016)는 리듬창작 합주 수업이 지적장애인의 리듬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총 11차시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적장애 학생의 리듬감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합주라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초룡(2020)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즉흥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즉흥연주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즉흥연주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게 되었으며, 부정적인 행동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하였다.

3.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형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숙과 자아정체성의 확립, 여러 또래 집단을 경험하는 시기(송명자, 2006) 성인기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사회 참여의 경험은 현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될 기회이며, 사회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김은혜, 2018). 그러나 권미영(2016)에 따르면 자폐성장애 청소년들에 대하여 장애 수용도가 낮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폐성장애 학생들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고 교우 관계와 일상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였다(송민애·이승희, 2015). 전통적인 특수교육이나 치료의 현장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문제 활동의 개선방법에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장애 이해가 최근에는 장애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손상과 결함 중심의 장애 모델을 벗어나 장애 청소년들의 강점과 재능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과 성공적인 전환에 많은 관심이 있다(조인수, 2015). 이런 강점과 재능 혹은 활동의 참여를 더욱더 지원하는 영역이 다양해 지고 있는데 장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체육활동, 재활복지 서비스 등의 지원방안이 보고되고 있다(김종인 외, 2009). 발달장애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 독립생활을 시작하고 사회로 통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지역사회에 참여가 저조하고 여가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이 비장애 청소년들보다 더 어렵다고 보고하였다(이정기 외, 2002). 이렇듯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보이는 낮은 사회 참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사회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참여의 주체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정체감은 심리적, 사회·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김효정·이관형, 2020). 그

첫 번째로 장애 인식의 측면을 다루는 심리적 차원은 개별적인 정체감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정체감을 다룬다. 이것은 사회에서 장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이익섭·신은경, 2006). 두 번째인 사회·정치적 차원은 장애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임파워먼트 과정이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집단적인 협력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장애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원에서의 장애 정체감은 장애 정체감 자체를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다. 집단적 소속감과 장애 부심을 바탕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인데 특히, 장애인 자조 집단에서는 고유의 문화를 생산해 내는 기초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효정·이관형, 2020). 장애 정체감은 장애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태도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이다(이익섭·김성연·최지선, 2007). 또한 Gill(1997)은 장애 정체감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 내적, 대인 관계적 및 사회적 역동 안에서 통합시켜나가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장애 정체감은 인간의 잠재성을 일깨워 예상하지 못한 강점을 보여주는 위치로 이끈다고 하였다(김재엽·이진석·오세현, 2014). 장애 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1963년 고프만의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 적응(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에서 “장애인은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복잡한 방어체제와 선택적 인지체제를 동원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기술하여 사회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었다(조한진 외, 2013). 즉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장애 정체감과 관련이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장애 정체감은 주로 청각장애인의 장애 정체감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비장애인들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갖는 소수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을 강조한다(김연경, 2019).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라는 다른 언어를 통해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포함하여 연대감을 느끼는 것을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장애 정체감이라 한다(전지혜, 2011).

장애 정체감에는 장애의 실체가 반영되어야 하고(Shur, 1998), 장애와 관련된 문제와 방해요소를 근절할 가능성, 정치적 해결에 대한 신념이라는 개념, 분리(separation)와 화합(unity)에 대한 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되며(Putman, 2001), 장애와 관련된 자부심, 개인적인 시민권, 장애인들의 신체적 상태와 저평가로 인한 차별신념의 중요성에 따라 구성한다(Hahn, 1997; Moore, 1998). 이렇게 척수손상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하는 과정의 심리를 연구했던 Shur(1998)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장애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는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적 모델을 통해 사회적 측면의 장애 정체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익섭과 신은경(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을 순응(conformity), 부조화(dis

sonance), 몰입 및 저항(immersion and resistance), 자기반성(introspection)의 단계로 제시하였지만 주로 지체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위주로 치중되어 있다.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 정체감 형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바탕이 된 장애 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수현, 2018). 또한,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장애 정체감은 당사자의 의지, 노력, 이타성, 가족의 지지 및 사회성 향상과 사회적 지지체계망 확대 등 사회 환경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연구에서는(이수민·이세형, 2020) 장애 정체감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해서 변하는 것이기에 언제든지 억압적 장애 정체감도 발전적 장애 정체감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지혜(2011)의 연구에서도 장애 당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차별적 시선이나 동정, 배제 등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 장애로 인한 열등감을 벗어나 바른 장애 정체감을 확립하고 장애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장애 정체감은 개인의 심리적 장애인식의 범위가 아닌 사회적으로 당사자들의 사회적·정치적인 장애 인식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정체감의 범위를 당사자의 장애 인식 수용과 사회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문화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제한하고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에 따라 장애 정체감 형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의미와 장애 정체감의 형성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알아보려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참여자들을 관찰하고 현상을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 음악창조 활동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고 그 과정과 경험에서 장애 정체감의 형성에 관한 연구의 주관적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기에 적절하다.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문화형성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과정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이 중요하며 한정적이며 제한적일 수 있는 의사 표현에 있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창조 활동의 일지기록을 참고하며 개방적인 심층 면접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2.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인 경우, 청소년이라 한다. (ㄴ) 음악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 (ㄷ) 음악 활동의 경험을 문자와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 (ㄹ) 연구 참여에 동의한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연구주제와 적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D 지역에서 재활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예술단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 각각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으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다. 또한, 예술단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연주 경험이 있기에 본 연구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 연구참여자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학교와 전공과에 재학 중이고 재활 음악치료, 음악교육의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2명이며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이름	나이	학력	음악 경험
A	23	대학생	10년
B	22	전공과	8년

연구참여자 A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지역의 대학생으로 12세부터 음악센터에서 재활 음악치료를 하며 주 2회 악기적응, 음악적응을 시작으로 13세 때 바이올린 악기를 탐색할 수 있게 되어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바이올린 음악교육을 받으며 꾸준히 자기 규칙 안에 음악 과제수행을 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점차 바이올린 기능향상을 보였다. 질문에 단답형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생각한 것을 짧은 문장들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재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작곡이나 짧은 음악 만들기의 경험이 있어 이번 연구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재활전

문가에게 연구참여자 후보로 추천받았다.

연구참여자 B는 지적장애이고 현재는 전공과 학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지 향상과 합창 활동을 주목적으로 재활 음악치료를 시작했으며 6개월 후 예술단에 소속하여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언어발화와 호흡, 소근육의 기민성을 위해 클라리넷 악기를 권하게 되었고 꾸준히 음악교육을 받으며 점차 클라리넷 기능향상을 보였다. 언어적 표현력이 풍부하며 일상의 대화에 능숙하게 답변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번 연구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재활전문가에게 연구참여자 후보로 추천받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3. 자료수집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들은 음악창조 활동 과정 중에서는 재활 음악 상담 일지와 관찰일지, 활동사진, 영상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음악창조 결과물인 '새벽 날개' 노래가 음원으로 등록된 후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음악창조 활동프로그램

음악창조 활동프로그램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음악창조 표본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음악창조 활동은 2022년 5월부터 8월 초까지 주 1회 90분씩 연구참여자와의 음악창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활동에서 보이는 그들의 발화, 행동, 태도 등에 관하여 재활 음악 상담일지를 활용하고 작성 수집하였다. 재활 음악 상담일지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음악 활동에서 드러나는 주제에 관하여 대화한 것, 작업을 기록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표현에 대하여 기록했다. <표 2>는 음악창조 활동 연구 순서이다.

〈표 2〉 음악창조 활동 연구 순서

구분	2월~5월	5월~7월	8월		8월		9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음악창조 표본	■							
참여자 모집	■							
음악창조 활동		■	■					
선행연구 정리			■		■			
인터뷰 시행					■	■		
인터뷰 분석						■	■	■
연구결과 정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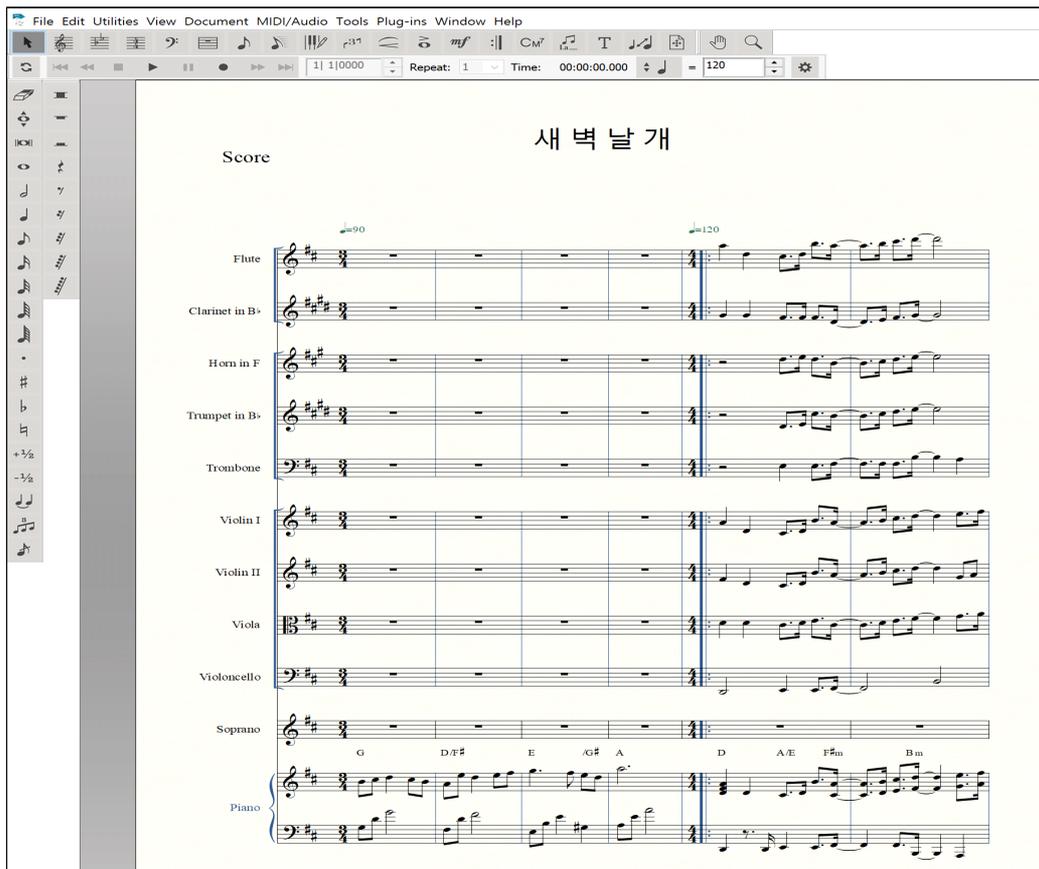
다음은 음악창조 활동의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활동 당시 대화, 행동, 태도 등에 관한 재촬영 음악 상담 일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상담일지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적인 말투와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였으며 음악창조 활동의 단계별 범주는 〈표 3〉과 같다.

〈표 3〉 음악창조 활동 단계별 범주

단계	음악창조 활동 단계별 범주		
1단계	음악패턴 모방 주고받기, 준비 단계		
	1회차	인사 및 친밀감 형성	
	2회차	리듬 패턴 모방하기	기본 리듬, 변형 리듬 이해하기
	3회차	가사 패턴 모방하기	다른 노래들 참고하며 가사 모방하기
2단계	음악표현 조정단계		
	4회차	리듬 패턴 수정하기	주요 리듬 정하는 과정 소통하기
	5회차	가사표현 수정하기	주요 가사 정하는 과정 소통하기
	6회차	주요 멜로디 정하기	주요 멜로디 정하는 과정 소통하기
3단계	공동 음악 만들기		
	7회차	가사 만들기	피날레 11버전으로 작업하기
	8회차	멜로디 만들기	
	9회차	가사, 멜로디 수정작업	
4단계	음악제작과 정물 등록 및 음원 발매		
	10회차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해	한국저작권등록위원회 가입
	11회차	음원 만들기	큐베이스 10.5 버전으로 작업하기 음원 녹음과정
	12회차	음원 유통회사 연락 및 등록	음원 유통회사 연락 및 음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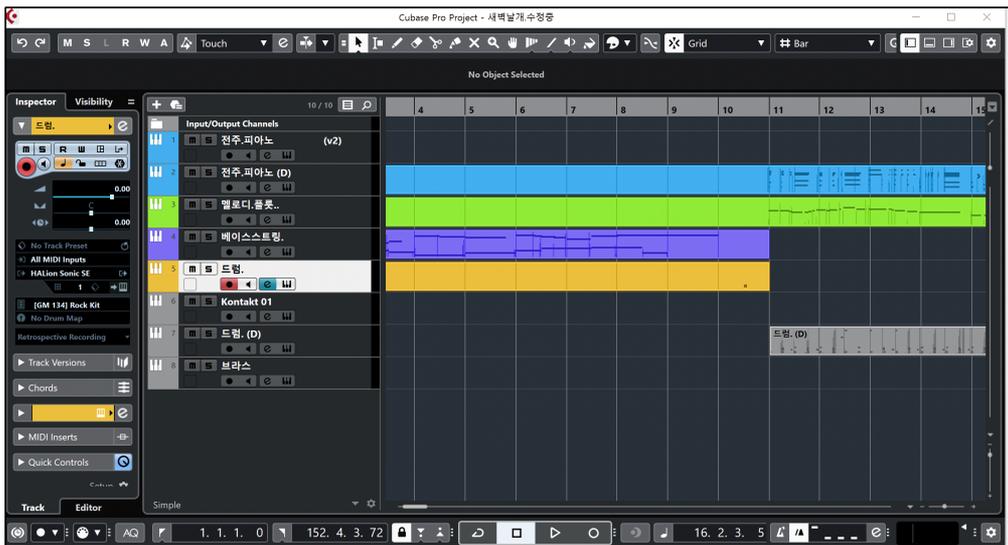
음악창조 활동 단계별 범주는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 재활 음악치료 프로그램(채민 외, 2018)을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1단계(1~3회차)인 음악패턴 모방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음악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음악창조 활동의 기본인 리듬과 멜로디의 음악패턴을 알아가는 단계이다. 2단계(4~6회차)인 음악패턴을 반영한 음악표현 조정단계는 자기 결정과 상호소통이 활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의 단계가 거절 및 수용의 반복을 통하여 긍정적 거절이 좌절감이나 소외감이 아니라 더 나은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을 위한 과정임을 경험한다. 3단계(7~9회차)인 공동 음악 만들기 단계는 가사작업과 멜로디 작업의 상호작용 확장 단계이다. 공동의 결과물이 당사자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 확정을 반복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집중한다. 4단계(10~12회차)인 음악제작 결과물 등록, 음원 발매로 구성되어있다. 이 단계는 장애 문화 및 사회 참여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이 생산된 이후 당사자들의 음악창조 활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이 더 남아 있다. 음원의 등록과 음원 발매로 당사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사회활동의 참여 확장에 이바지한다.

음악창조 활동프로그램에는 2개의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에 진행하였으며 그 첫 번째는 피날레 11버전 프로그램이다. 이는 Coda Music Technology에서 1990년에 만든 악보 사보용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 자체의 많은 발전으로 인해 현재 본연구에서는 11버전으로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며 한번 입력된 음들을 복사, 편집, 전조 등을 할 수 있고 완성된 것을 다시 들어볼 수도 있어서 자신이 창작한 부분의 수정도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했던 창작 수업보다 이론적 지식이 매우 약하더라도 창작활동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악보에 음표를 입력할 때마다 실음을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함찬미·김지현, 2010). 피날레로 만들어진 악보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형식이다.



<그림 2> 피날레 11버전의 음악창조 활동

음악 창작활동을 위해 두 번째 음원 프로그램인 큐베이스 10.5는 독일의 Steinberg²⁾에서 개발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으로 1989년에 아타리(Atari)³⁾ 컴퓨터를 기반으로 출시되었다. 이런 음악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음악 창작활동의 접근은 신체적, 인지적 장애로 인해 기존의 악기나 도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참여만으로도 음악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박예슬, 2015).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악기를 지정하고 수정하면서 다양한 음색을 탐색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과정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큐베이스 미디 신호를 제어하는 음악 시퀀싱(sequencing), 디지털 오디오 편집, 믹싱(mixing) 등이 모두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큐베이스 10.5버전의 음악 창작활동

(2)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2차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음악 활동을 하는 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1차 면담 소요시간은 46분이며 2차 면담 소요시간은 52분으로 평균 49분이었다. 1차 인

2) Steinberg는 독일의 가상 악기 및 시퀀서 개발 회사로 가상 악기의 표준을 만든 큐베이스 및 누엔도(Nuendo)를 만든 회사이다.
3) 아타리는 미국의 놀런 부시벨이 1972년에 창업한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회사이다.

터뷰는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며 2차는 그 경험의 방식과 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였고 답변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음악창조 활동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겨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결과물을 함께 제시하며 ‘음악창조 활동’의 행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재구성이 될 수 있도록 반구조화 형식의 질문을 하였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면담에 있어서 본 연구의 주제를 쉬운 질문 형식으로 변경하여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부담감을 적게 하고,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 방법은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에서는 관찰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재할 음악 상담일지, 활동녹음, 영상 등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사례연구의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장애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범주화하며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확인’의 과정으로 요약된다(유기웅 외, 2019).

첫 번째, 개방 코딩은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개방 코딩에서 파악된 특성을 어떤 범주로 분류하는지의 문제로서 이 단계에서는 장애 정체감 중 사회적 문화형태를 만들어 가는 내용으로 범주를 분류하였다. 세 번째, 범주확인은 자료가 빠지거나 불필요한 범주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유기웅 외, 2019: 324). 질적 연구 방법론에 따른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연구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더 경험의 본질과 의미에 맞게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정을 거쳐 1차 분석작업 후 2차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음악창조 활동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호자들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자들에 관한 비밀보장 및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음악창조 활동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와 면담에서의 녹취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동의서’를 설명한 후 동의받았으며 참여자들의 보호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았고 참여자들의 의지에 따라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하여 동의를 받았다. 두 명 모두 같은 예술단 소속으로 매주 토요일 오케스트라 연습 후 센터 멀티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또한, 연구결과 발표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것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음악 지도 교수 1명, 재활상담 박사 2명을 통해 동료 검증(peer debriefing)하여 자료 분석 과정 중에 도출된 개념어의 의미가 적절하고, 범주를 묶는 과정에서 비슷한 의미들과 묶음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자는 2007년도부터 재활 음악전문가⁴⁾로 다수의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술단의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의 경험이 있다. 또한, 2021년 ‘마음소리 1’의 음반을 만든 경험이 있어 본 연구의 음악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들과는 주 1~2회 개인 음악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친밀한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음악적 표현력을 잘 이해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음악 창작활동 역동성을 끌어내고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IV. 연구결과

1.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 의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을 의미한 결과로는 먼저 ‘새벽 날개’라는 창작곡이 만들어졌다. 음원 및 음반 등록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새벽 날개’ 노래를 2022년 7월 25일에 등록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음원 녹음에 참여하였다. 2022년 8월 10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음원 플랫폼을 통해 음반이 등록되었고 한국의 음원사이트 ‘멜론’, ‘벅스’, ‘네이버’ 등 새벽 날개 곡이 공식적으로 업로드되었다. 창작곡 일부는 본 연구자가 형식을 만들고 그 후 악기 세션의 멜로디와 리듬의 형식을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 의지, 창작 경험에 대한 기대감, 음악창조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경험되어진 사회적 접촉 등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4) 2012년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한국 재활 음악치료학회의 자격증 이름으로 보건복지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다음은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단계별 분석 결과이다.

1단계인 음악패턴 모방과 주고받기에서 먼저 연구참여자 A와 연구참여자 B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좋아하는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함께 들으며 음악적 스타일을 알아갔다. 서로 4~5년을 같은 음악실에서 만나고 함께 예술단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룹 수업에서도 낯설어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음악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둘의 언어적 소통은 단어들의 나열식이나 짧은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였다.

계이름으로 화음을 쌓고 또는 불협화음이 되는 것을 찾는 것으로 음악패턴 주고받기를 하는 연구참여자 A와 연구참여자 B의 태도에서는 서로 맞는 계이름을 찾거나 지난 수업 시간 때 비슷하게 진행해왔던 패턴을 기억해 내면서 참여를 하였다. 서로 불협화음보다는 협화음을 찾거나 대입하려는 태도가 있으며 불협화음이 '실수하는 소리'로 느끼고 있어서 참여자들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 : 다른 계이름은 어때?

B : 미래도 파파파? A : 파? 파?

연구자 : 파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조금 다르게 바꾸는 건 어때? 리듬을 바꿔볼까?

A : 파, 파, 파미

연구자 : 어때? 여기 파미를 빠르게 리듬 바꾸면 어때?

B "파미, 파미 ~~~"

재활 음악 상담일지 1회차

피날레 11버전으로 음표와 박자 리듬 음색 등을 변환시키면서 음악창조 활동의 준비 단계로 피날레 조작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 두 명 모두 컴퓨터 조작 활동과 수정방법, 그리고 음악 보표 읽기가 가능하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나 다시 듣기 등의 버튼 조작은 새로 배우게 되었다.

2회차까지는 기존의 있는 곡들을 가지고 리듬 분석과 리듬 패턴을 모방하는 것을 진행하였다. 어떤 리듬들이 노래 속에 있는지 파악하고 리듬을 나열할 수 있게 훈련하며 서로 찾아낸 리듬을 가지고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좀 더 확장된 리듬 패턴을 유연하게 경험하였다. 각자의 악기로 정해지는 멜로디들을 음원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A는 바이올린으로 B는 클라리넷을 연주할 수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음계의 범위를 선택하였다. 그 속에서 다양하게 멜로디를 만들어 보며 화음과 노래 방향에 맞는 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노래 양식을 맞춰갔다.

3회차에서는 리듬뿐만 아니라 기존의 곡들의 가사를 확인하고 리듬의 강조와 단어의 강조를 찾아보며 중요하게 생각되는 노랫말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했다.

연구자 : 자유롭게 나는 것은 어떤 거야?

B :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해요.

재활 음악 상담일지 3회차

4회차에서 6회차까지의 음악표현 조정단계에서는 각자의 악기로 멜로디를 만들었고 여러 번 결정과 수정의 단계를 거쳐 자기표현의 확신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신의 음역에 맞는 악기 세션의 구성을 배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연습 범위도 스스로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간이었다.

B : 여기 연습해요? 연습할래요, 요기 더 연습... 연습할게요.

A : 선생님 저 여기... 여기 부분 지워요.

재활 음악 상담일지 5.6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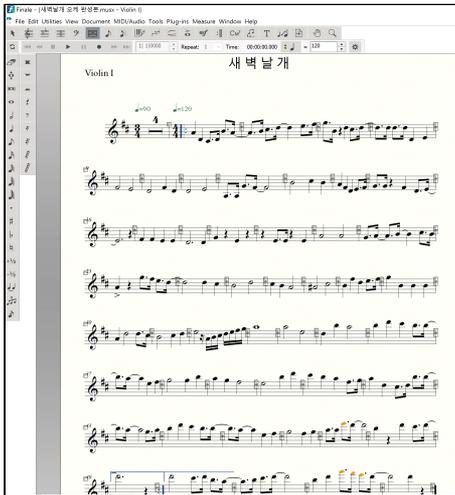
7회차에서 9회차까지는 피날레 11버전으로 음악을 들어보고 수정하는 시간을 거치며 자기 결정에 대한 마지막 확인과정을 가졌다. 불협화음이나 각자가 맡은 악기의 구성에서 리듬이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며 최종적인 음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가졌다.

10회차에서 마지막 12회차까지는 완성된 '새벽 날개'의 악기 세션 부분을 음원 녹음을 위해 연습하고 맞추는 시간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노래 등록 및 음원 녹음 회사와 계약, 음반 만들기 과정을 가졌다. 대표의 이름으로는 본 연구자의 이름으로 등록을 마쳤고 연구 참여를 한 A와 B와는 음원 유통으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창작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있어 필요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A : 우와 이제 우리 노래 나와요? 여기에 이름 적었어요.

B : 이거 할머니도 들을 수 있어요? 할머니 다운하라고 해야지.

재활 음악 상담일지 12회차



〈그림 4〉 바이올린 세션별 예시



〈그림 5〉 클라리넷 세션별 예시

2. 발달장애 청소년의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서의 의미

장애 정체감의 범위를 당사자의 장애 인식과 사회적·문화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함께하니 즐거워

A : 즐겁고 재밌어요. 이게 진짜 우리 노래예요?

B : 선생님, 나도 이거 놀러요 내가 네이버에 쳐볼게요 (중간생략) 좋아요.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들은 음악창조 활동과정이 즐거웠다고 하였다. 서로 격려하며 참여자들이 만든 음악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고 재생하며 음악창조 활동의 실재를 경험하는 과정이 즐겁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음악 자체를 좋아한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 가는 참여의 의미로 더 애착감을 나타냈다. 평소에 개별 음악 활동이나 오케스트라 활동의 과제로 음악 수행력에서도 즐거움을 자주 표현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 과정에서 보이는 참여자들의 '함께하니 즐거워'는 좀 더 집중하고 자기가 표현한 대로 음악적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에 즐거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작업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생각과 표현을 서로 상호소통하는 경험을 하였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소속에 대한 자발적 표현이다.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공동의 목적성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제고에 실천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

2) 자기 의지와 지지

A : 저 집에 가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메트로놈 들고 매일 20번씩 했어요

B : 선생님, 저도 연습해요. 입술 아팠어요. 리드 물고 있으니까 입술 힘 들어가서 뽕 거렸어요. 연습하니까 되던데요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들의 음악창조 활동을 책임감 있게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개인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기 의지에 있다. 처음부터 피날레 11 버전을 능숙하게 다루거나 정해진 멜로디를 악기로 표현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며 연습하는 과정과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힘들지만 끝까지 곡을 만들며 참여하였다. 악기별로 어려운 게이름이 있을 때는 개별연습실에서 연습을 더한다거나 자신이 맡은 소리를 책임 있게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이 점차 윤곽이 드러날 때는 연구참여자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찾으려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음색을 찾고 선택하며 실제의 소리를 구사하기 위해서 또한 연습에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정밀하게 음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들의 태도에서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 되는 음이나 박자, 어울리지 않는 소리 선택 등이 초기활동에서 있었을 때는 불안하거나 ‘실수하면 안 돼’라는 태도로 연습하며 자기 소리에 책임을 지려는 자기 의지를 보였다. 자기 동기부여를 확인하며 연습의 결과로 좋지 않은 소리가 있을 때는 경직이 되기도 했지만, 참여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지지’ 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며 지속해서 활동에 지지를 보이는 태도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긍정적 장애 인식 수용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 경험을 통하여 그다음의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에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은 긍정적 장애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도 연주자

A : 내 노래를 또 만들래요

B : 나는 연주 선생님 하고 싶어요

인터뷰 내용 중

‘나도 연주자’라는 의미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는 자신의 창작물이 만들어졌고 유튜브나 개인 SNS 계정에 자신의 노래를 올리면서 평소의 연주 활동과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보호자들과 소통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경험’으로 이번 연구의 참여가 희망적이라고 하였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적 기능을 높이고 있으나 ‘연주가’가 되는 전문적인 위치에서 자립 생활을 가지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등의 태도는 연구참여자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 계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의 독자적인 문화형태의 구축을 단순히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하다. 하지만 지속해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새로운 창작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당사자들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하게 하는 장애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순환이 될 것이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의 의미와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을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 창조 활동을 경험해 보고,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장애 정체감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참여로 창작곡이 만들어진 것이 고무적이며 음악 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적용할 기회가 되었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활동으로 교육과 치료의 과정에

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로 음악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활동’ 그 자체에 장애 당사자들의 자기역량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대체로 장애인들의 창작 수준을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두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표현의 부분을 무시하거나 ‘창의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두는 태도가 만연하다.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면 얼마든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표현을 비장애인들의 해석에 따라 소극적으로 일축하여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험이 소외되고 배제되어 진다(유동철 외, 2013). 소극적인 자기표현과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내면의 감정과 사실, 생각 등을 유연하게 표현하는 데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었다. 장애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과정에 있는 장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표현이 곧 장애 정체성의 한 부분이므로 더 많은 자기표현과 자기 소리를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들로 재현할 수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 창작활동은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음악적 구조, 멜로디, 악기의 구성을 선택하는 자기 결정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에서는 모든 분야 모든 활동 전반에 걸쳐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배우며 창작활동에서의 문제해결 과정과 해결 후 창작물에 대한 완성도에 대하여 변화되는 피드백을 다양한 관점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음악 활동 접근은 그동안 수직적이고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음악전달법에서 더 나아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음악적 질서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 경험이 장애 정체감 형성의 의미에서는 장애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공동의 작업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가지는 소속감은 장애 정체감 형성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음악창조 활동의 다양한 상호소통은 스스로 장애 정체감을 발달시켜 자신이 더 부끄럽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장애인으로서 사회적응과 사회 참여, 자립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현아, 2017: 문주영·손승현·이예다나, 2014: 최지선·손주영, 2010). 음악창조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인 ‘음악’이 장애 당사자들의 사회적 문화 형성의 시발점이 되어 당사자 스스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경험을 지원하는 것에 일조한다. 창조적 음악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참여, 자발적 활동, 자신의 창작물 소유 등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 접근의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발전적인 장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개인적 맥락에서 장애자부심이나 성취감, 내면적 안정감을 가지거나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 참여, 사회적 지지 등을 형성하는 것은(송정문, 2016) 당사자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참여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음악창조 활동 경험만이 사회적 문화적 범위에서의 장애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미흡하다. 다만 ‘음악창조 활동’은 발달장애인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계적 지지기반에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이들의 사회 참여 경험이 더욱 확장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요소가 한정적인 현재의 장애 문화에 음악창조 활동의 결과물은 그들의 주장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확장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단순히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유물’로 1인 창작물로 수준 있는 창작물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장애 복지, 예술정책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강령은 장애학적 연구에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장애 정체감 형성에는 본 연구로는 부족한 결과이지만 학제적 융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선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 소통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을 위해 연구참여자가 2명이었다. 한정된 기간 동안 한정된 참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결과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 사례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장애 정체감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로는 음악창조 활동의 경험이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장애 정체감의 구축을 위해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들의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개발을 위해 사회적·교육적·문화적 접근 방안과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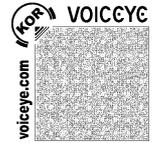
- 강유선 (2013). 청소년의 또래 관계 질에 미치는 공감과 정서 표현성의 영향에 대한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3(1): 153-176
- 강은주. (2006). 창작무용 활동이 발달장애아의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48: 147-162.
- 권미영. (2016). 통합 환경에서 중·고등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269-291.
- 권세라. (2019).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발달장애 성인의 프로그램형 음악 활동 참여 현황 및 욕구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현아. (2017). 『시설외소 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및 대처 효능감이 자립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상호작용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준, 김판수, 문대영, 박수자. (2010). 교과교육에서 창의성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숙희. (2010). 『해피스쿨 프로그램이 초등 청소년의 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경. (2019). 『장애 대학생의 장애 정체감과 낙인 인식이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진로 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우리, 고혜정. (2013).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사회적 중재 연구 동향.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5(3): 25-55.
- 김유리, 김진. (2018).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연구 동향 및 증거기반 실제 평가. 특수아동교육연구, 20(3): 159-188.
- 김유하. (2016). 『통합 음악 교수법에 의한 리듬창작 합주 수업이 지적장애 학생의 리듬감 향상 및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혜. (2018). 『잊기 힘든 뮤지컬 : 자폐성장애 청소년의 뮤지컬 공연 경험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엽, 이진석, 오세헌. (2014). 장애인 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의 긍정적 의사 표현,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장애 정체감의 역할. 사회복지연구, 45(2), 147-172.
- 김종인. (2008). 『아동음악치료방법론』, 파주 : 한국학술정보.
- 김종인, 김원경, 고정옥, 오이표 (2009).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김태완. (2015). 『피날레와 큐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작 음악 지도연구 :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실, 김은주. (2015). 불안장애 대상자에게 적용한 비약물적 중재효과 메타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6(11): 7273-7284
- 김현정. (2019). 집단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의집중력 향상 및 학교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교육공학회, 0(40): 1-14.
- 김효정, 이관형. (2020). 정신장애인의 온라인 카페 활동이 장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학, 5(2): 87-107.
- 문영민. (2016). 장애 공연예술은 장애 정체성과 어떻게 공명하는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26: 84-87.
- 문주영, 손승현, 이예다나. (2014). 사회적 지지와 장애 대학생 학업 적응의 관계: 장애 정체감의 매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문제연구, 3(52): 53-75.
- 박연희. (2021). 『발달장애인의 연극 공동창작에 대한 참여적 실험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예슬. (2015). 음악치료에서의 음악테크놀로지 활용.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12(2): 61-77.
- 송명자. (200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민애, 이승희. (2015). 자폐성 장애 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통합학급 일반 학생의 인식.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31(1): 155-172.
- 송정문. (2016).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민주, 주용국. (2018). 발달장애 청소년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혁신연구, 28(4): 413-440.
- 양 린. (2021). 텍스타일 기반 창작활동에 의한 치유.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6(1): 205-216.
- 여광은, 이점조, 이명화. (2006). 자기표현 미술 활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 아동의 주의 산만, 공격성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7(1): 331-349.
- 원초롱. (2020).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상규, 김원중. (2007). 집단상담 : 음악 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

- 교우 관계 및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8(2): 513-532.
- 우지연, 이영철. (2010). 지적 장애아동의 사회성 증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2(2): 1-24.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서, 김한별. (2019).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 스토리.
- 유동철, 김동기, 김경미, 신유리. (2016). 장애인의 지역사회 신뢰와 장애 정체감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337-347.
- 유아정, 남현우. (2022). 악기합주 음악치료가 신경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융합학회, 44(5): 593-622.
- 이미경. (2017). 융합적 시대의 음악창조와 창의성 연구의 변화. 미래음악교육연구, 2(2): 37-52.
- 이수민, 이세형. (2020).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장애학회, 5(2): 159-181.
- 이익섭, 신은경. (2006). 장애 정체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척수손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 111-141.
- 이익섭, 김성연, 최지선. (2007). 지체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지, 11(3): 56-76.
- 이정기, 안성우, 백유순. (2002). 발달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적응 실태. 발달장애학회지, 6(2): 213-229.
- 이호섭. (2020). 대중가요 작사법 시론. 한국대중음악학회, 26: 9-42.
- 임수경. (2014).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룹 음악치료 프로그램』,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은희. (1997). 『不安, 憂鬱症勢를 향소하는 클라이언트의 社會適應을 위한 音樂治療 效果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세영. (2021). 발달장애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기술 특성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발달장애학회, 25(2): 31-54.
- 장연희, 박은경. (2018).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효과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2), 29-51.
- 전지혜. (2011). 장애 정체감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그리고 장애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

국장애인복지학, (15): 57-76.

- 정다은. (2016)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원, 석문주, 오지향, 이수진, 최미영. (2021).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음악창작 교수·학습 방안. 미래음악교육연구, 6(3): 71-93.
-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개정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희승. (2017). 청각 인식 훈련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감각처리 기능과 발달 프로파일에 미치는 효과.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지, 9(1): 35-49.
- 정희정. (2018).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심리적 요소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수진. (2016). 상호적 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자폐범주성장애 성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13(1): 89-110.
- 조윤정. (2010). 『창작 무용교육이 청각 장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인수. (2015). 전환: 교육·서비스. 대구: 명성사.
- 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곽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학지사
- 진수경. (2021). 『창작 음악극을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 민. (2009). 『상호작용중심 집단음악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술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 민, 황준성, 김은혜, 김지혜, 김은영, 박소연. (2018). 재활 음악치료 임상 사례보고서 : 대구00초등학교 재활 음악치료의 대한 임상 사례보고서.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2(2): 15-35.
- 최지선, 손주영. (2010). 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제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 장애 정체감, 차별 경험과의 관계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12, 35-36.
- 함찬미, 김지현. (2010). 피날레 2010을 활용한 창작 수업 지도방안. 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31(1): 129-144.
- 황준성. (2013). 집단음악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1: 1-28.



Gerber, S. (2003).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Languag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children on the autistic spectrum,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23(2): 74-97.

Gill, C. J. (1997). Four Types of Integration in Disability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 39-46.

Hahn, H. D. (1997). an agenda for citizens with disability : pursuing identity and empower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9): 31-37.

Hickey, M.M. (2001). More or Less Creative? A Compariwon of the Composition Processes and Products of “Hily-creative” and “Less-creative” Children Composers. *Second International Research in Music Edycation Conference*.

Kratus, J. (1994).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Music aydiation and Their Compositional Processes and Produc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2): 115-130.

Leffert, J. S., & Siperstein, G. N., (2002). Social congition: a key to understanding adaptive behavior in individual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International Review fo Research in Mental Retardation*, 25: 135-181.

Putman. M. M, (2001). Individual Disability Identity : A Veginning Explration into ITS Nature, Structure, and Relevance for Political Coalition Buildi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hur, L. (1998). Disability and the psychology of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ydies*, 9(2): 3-31.

Sitlington, P. L., Clark, G. M., & Neubert, D.A, (2006).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 Students ith Disabilities*, Boston, MA: Pearson.

Walton, K. M., & Ingersoll, B. R., (2013). Improving social skills i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autism and severe to profound intellectual disability: A review fo the literature, *Journal fo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43(3): 594-615.2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	-----------------------	----------------------

Abstract

Study on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Formation of Disability Identity

Chae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its argument about the essence of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meaning of disability identity formation, by using a case study, one of qualitative study methods. To this end,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wo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engaged in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by conducting a sampling survey of the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awn Wing', the outcome from the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was created. Second, the meanings of the disability identity formation including 'It's pleasant to be together with others', 'one's will and support' and 'I'm also a player'. According to them, the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ma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self-decision and interaction, in producing the outcome. It also helps support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recognize the disabilities, in forming the disability identity. It is not, however, sufficient to meaningfu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of disability identity formation and the music creation activity experience.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producing various outcomes from the music creation activity and conduct a further study on the disability identity formation as a sociocultural approach.

Key words :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sability identity, music creation activity, case study

* Department of Disability Studies, Daegu University